DOI : http://dx.doi.org/10.17647/jss.2015.11.61.113

18세기 이후 한성부 북부 6방(坊)(현 북촌)의 주거 정체적(停滯的) 구조

정정남 (공학박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한성부의 북부와 서울의 북촌
1. 한성부 북부의 두 구역, 서울 북촌과 서촌
2. 북촌의 입지와 미세지형
Ⅲ. 한성부 광무호적을 분석하여 본 북촌의 존재양상
1. 미세지형을 따라 형성된 坊경계
2. 양반 중심의 거주자 신분구성
3. 경제력에 비례하는 주거규모
Ⅳ. 18세기 이후 북촌지역의 주거 停滯的 구조
1. 1坊 1洞 1契의 행정편제
2. 免役 및 避役이 가능한 坊구조
3. 신분폐쇄적 주거전용 구역의 유지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본 연구는 광무 연간에 작성된 한성부호적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서울 북촌에 해당하는 지역의 조선시대 행정경계를 복원하고, 해당지역 거주민의 신분구성과 주거규모의 존재양상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 북촌지역의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구체적, 실증적으로 밝히려한다.

조선시대 한양의 북촌은 본래 종로 이북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1930년대 후부터는 율곡로 이북의 경복궁과 창덕궁사이 지역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정된 북촌은 옛 주거지와 도시조직이 잘 간직되고 있는 점에 가치가 부여

되어, 1999년 후반부터 비롯된 '북촌 가꾸기'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비되었다.[1] 그 덕분에 북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몰리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북촌가꾸기는 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개선된 환경으로 인해 관광객이 몰려들자 주택을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하는 등 거주민의 사고도 상업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도성 내 많은 지역들은 점차적인 변화를 거쳐 주거공동화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업화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북촌은 그 변화에 초연한 듯 오래도록 조선시대 주거지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 북촌은 어떤 곳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지형적 · 입지적 조건만으로는 그 내재적 힘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 遺傳的 내력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2]

이에 본 연구는 1906년(광무 10)에 작성된 한성부호적에 기재된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그 내재적 유전인자를 찾아내려 한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여 서울의 인구는 순조년간부터 1870년대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가 이후 조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3] 이는 1900년대 초반 한성부의 인구양태를 기록한 한성부 호적의 분석을 통해 18세기 말 19세기까지의 상황을 읽어내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연구는 한성부 북부 지역 중 현재 북촌으로 지칭되는 지역으로 대상지를 한정하여 진행할 것이다.[4] 한성부 호적에 기재된 행정구역상 북부지역은 광화방 · 양덕방 · 가회방 · 안국방 · 관광방 · 진장방 · 순화방 · 준수방 · 통의방 · 상평방 · 연은방 · 연희방이다. 특히 북촌에 해당하는 광화방 · 양덕방 · 가회방 · 안국방 · 관광

1) 송인호,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 연구와 실천」, 『건축역사연구』 통권 30호, 2002. 6. 105~106쪽 참고.

2) 이에나가 유코[家永祐子]는 「북촌 한옥마을의 서울학적 연구」(민속학전공,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에서 북촌마을에 관한 선행연구는 1) 북촌재개발 연구, 2) 북촌의 경관과 관련한 북촌한옥에 대한 건축학적 접근 및 북촌마을의 보존 정책 연구, 3) 도시계획과 관련한 건축학적, 도시학적 연구, 4) 주거문화연구 등의 분야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고찰과 문화적 요소에 관심을 둔 연구는 적은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43~46쪽. 이에나가 유코의 이 논문은 북촌의 입지조건과 문화지리적 특성을 살피고, 북촌의 위상이 바뀌는 일제강점기에 개량한옥이 등장하는 경위를 살펴 조선시대와 일제시기의 두 흐름이 북촌에 대한 인식이나 전통한 마을로서 근거를 해석하는 중요한 두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나가 유코의 논문은 북촌의 인식적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지향점이 상당히 비슷하다. 하지만 이에나가의 연구가 조선시대보다는 일제강점기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1906년을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선 후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3) 고동환은 『조선시대 서울도시사』(태학사, 2007, 96~126쪽.)에서 『조선왕조실록』 · 『일성록』 · 『탁지지』 · 『증보문헌비고』를 전거로 네 가지 수정원칙을 두고 조선 후기 한성부의 인구 및 호구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추정해냈다. 그 결과 한성부의 호구 및 인구가 정점에 이른 지점인 181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였음을 도출해냈다.

4) 조선시대 북촌은 한양의 종로 이북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는 현재 북촌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연구이므로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 · 진장방은 동일 연도인 1906년에 작성된 호적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북촌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안국방과 가회방의 경우 1903년에 작성된 것도 남아 있어 그 변화추이를 살피는 것도 가능하다.

한성부호적을 통한 서울의 사회학적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5] 그 중 대표적인 연구자는 일본의 요시다 미쯔오[吉田光男]다. 그는 오래도록 한성부호적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이후 서울을 도시 사회학적 시각으로 읽어낸 여러 논문들을 내놓았고,[6] 또 그 결과들을 묶어 출책으로 출간했는데[7] 이 연구서의 내용은 많은 서울학 연구자들에게 참고와 지침이 되고 있다. 본 연구도 한성부 호적을 분석하여 진행하는 만큼 요시다가 분석한 내용을 비교 · 참고할 수밖에 없다.[8] 다만 요시다의 연구가 한성부 전체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북촌에 한정하고, 보다 미시적 시각으로 접근하려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극적인 변화가 많으면 기록도 많기 마련이다. 결국 이 기록들과 관심에 의해 서울의 상업지역이나 궁궐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용히 천천히 변화하며 그 자리를 지켜온 주거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본 연구는 기록도 많지 않고, 변화도 많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주거지를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중심지지만 무엇보다

5) 김영모, 1980「한말 한성부민의 신분구조와 그 이동」,『성곡논총』11. 성곡학술문화재단 / 김영배, 1991. 4「한말 한성부 주거형태의 사회적 성격–호적자료 분석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조은, 1992「'전산업사회 핵가족설'에 대한 재검토–한말 한성부 가구형태 분석을 중심으로–」, 1992년 후기사회학대회 / 조성윤 · 조은, 1996. 12「한말의 가족과 신분 –한성부 호적 분석」,『사회와 역사 제 50권』/ 임학성, 2004「조선 후기 한성부민의 호적자료에 보이는 '시입'의 성격 –한성부 주민의 주거 양상을 구명하기 위한 일시론–」,『고문서연구』24. 한국고문서학회 / 조은 · 조성윤, 2004. 5「조선 후기 섹슈얼리티와 그 근대적 전환 –한말 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 한성부 호적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제65권』/ 조은, 2005「유교적 가부장제와 여성호주 가족: 한말(韓末) 한성부 호적 자료를 중심으로」,『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 정정남, 2012. 11「대한제국기 한성부 종로일대지역의 住商복합구조」『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6) 吉田光男, 1992「漢城の都市空間—近世ソウル論序說」,『朝鮮史研究會論文集 通号 30』, 朝鮮史研究會吉田光男, 1993「戸籍から見た20世紀初頭ソウルの「人」と「家」—京都大學所藏「漢城府戸籍」の基礎的分析」,『朝鮮學報 通号147』, 朝鮮學會吉田光男, 1999「朝鮮近世の王都と帝都」,『年報都市史研究 通号 7』, 都市史研究會吉田光男, 2004. 7「朝鮮近世社會史料としての戸籍」,『朝鮮學報』, 朝鮮學會吉田光男,「韓國近世の人間關係を讀む—戸籍と族譜の世界」, 東京大學コリア · コロキュアム講演記錄, 2006年度, 84~101, 2006(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韓國朝鮮文化研究室 編/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韓國朝鮮文化研究室)

7) 吉田光男, 2009『近代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浦安

8) 본 연구자는 2007년 일본 동경대학 연수기간동안, 교토대학 총합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성부호적 을 동경에 소재한 학습원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에서 마이크로필름 출력을 통해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 쓰인 데이터 값은 본 연구자가 확보한 호적의 데이터를 연구의 내용에 맞추어 정리 · 분석한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생산해낸 데이터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이 사실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서울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조선시대 한성부의 북부와 서울의 북촌

1. 한성부 북부의 두 구역, 서울 북촌과 서촌

한성부는 1395년(태조 4)에 정해진 서울의 행정적 명칭이다.[9] 한성부의 공간적 범위는 도성안과 성저십리지역으로, 조선 초기 도성 안은 5部로 나누고, 도성 밖 성저십리에는 각기 面을 두었다.[10] 도성 안 5부는 종로 대로를 끼고 남북에 위치하는 中部를 중심으로 사방 동 · 서 · 남 · 북부로 구분하여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표 1〉 조선시대 한성부 북부의 행정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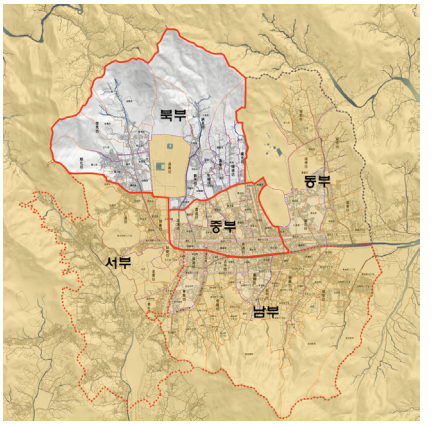
時期 / 坊名	1396년 (태조 5)	1432년 (세종 13)	1540년 (중종 35)	1750년 (영조 26)	1789년 (정조 13)	1867년 (고종 4)	1894년 (고종 31)
광화(廣化)	○	○	○	○	○	○	○
양덕(陽德)	○	○	○	○	○	○	○
가회(嘉會)	○	○	○	○	○	○	○
안국(安國)	○	○	○	○	○	○	○
관광(觀光)	○	○	○	○	○	○	○
진정(鎭定)	○	鎭長	鎭長	○	○	○	○
순화(順化)	○	○	○	○	○	○	○
명통(明通)	○	○	○	폐지	부활	폐지	–
준수(俊秀)	○	○	○	○	○	○	○
의통(義通)	○	○	○	○	○	○	通義
상평(常平)	–	–	–	–	신설	○	○
연은(延恩)	–	–	–	–	신설	○	○
연희(延禧)	–	–	–	–	신설	○	○

※ 家永祐子, 「북촌 한옥마을의 서울학적 연구」 81~82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9) 『태조실록』 태조 4년 6월 6일 : 한양부(漢陽府)를 고쳐서 한성부(漢城府)라 하고, 아전들과 백성들을 견주(見州)로 옮기고 양주군(楊州郡)이라 고쳤다.

10) 원영환, 1981 「한성부연구(1) –행정제도와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39. (고동환, 1998 「조선 후기 漢城府 행정편제의 변화 –坊 · 里 · 契 · 洞의 변동을 중심으로–」 39쪽에서 재인용)

〈그림 1〉 한성부 5부의 경계와 북부



※ 배경지도: 경기대학교 도시사연구실 제공

각 부마다 방을 구획하여 방명을 정한 것은 1396년(태조 5)의 일로,[11] 5부를 합쳐서 총 52개 방이었다. 이중 북부는 10개의 방으로 동쪽으로부터 각기 廣化 · 陽德 · 嘉會 · 安國 · 觀光 · 鎭定 · 順化 · 明通 · 俊秀 · 義通이라는 방명을 부여받았다. 중부를 제외한 한성부 행정방(行政坊)의 수와 규모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북부도 처음에는 10개의 방으로 구획되었지만, 영 · 정조시기에 걸쳐 명통방의 폐지 및 부활이 있었고, 정조 재위 기간에는 도성 밖 상평 · 연은 · 연희방의 신설로 12방이 되었다. 이와 같은 12방의 구성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졌다.

도성 안 北部의 지역적 범위는 남쪽으로 중부와 서부의 행정경계에, 동쪽으로 창덕궁의 궁장에, 북쪽으로는 경복궁을 포함하여 북서쪽 성곽에 이른다. 경복궁이 완성된 것이 1395년(태조 4)이고 창덕궁의 건립이 1405년(태종 5)인 것을 고려한다면, 동쪽 경계는 창덕궁 창건 이후보다 넓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북부의 공간적 범위가 창덕궁을 경계 삼아 서쪽으로 한정된 것은 1405년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계가 구획된 북부는 다른 4개 部와는 달리 경복궁을 중심으로 크게 동과 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두 구역은 위치적 차이만 있을 뿐 뒤쪽 산세에 기대어 남쪽을 향한 주거 최적의 조건으로,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두 구역 모두 사대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11) 『태조실록』권9, 태조 5년 4월 19일 병오: 한성부로 하여금 5부(五部)의 방명표(坊名標)를 세우게 하였다. 동부가 12방(坊)이니, 연희(燕喜) · 숭교(崇敎) · 천달(泉達) · 창선(彰善) · 건덕(建德) · 덕성(德成) · 서운(瑞雲) · 연화(蓮花) · 숭신(崇信) · 인창(仁昌) · 관덕(觀德) · 흥성(興盛)이요, 남부가 11방이니, 광통(廣通) · 호현(好賢) · 명례(明禮) · 태평(太平) · 훈도(熏陶) · 성명(誠明) · 낙선(樂善) · 정심(貞心) · 명철(明哲) · 성신(誠身) · 예성(禮成)이며, 서부가 11방이니, 영견(永堅) · 인달(仁達) · 적선(積善) · 여경(餘慶) · 인지(仁智) · 황화(皇華) · 취현(聚賢) · 양생(養生) · 신화(神化) · 반석(盤石) · 반송(盤松)이고, 북부가 10방이니, 광화(廣化) · 양덕(陽德) · 가회(嘉會) · 안국(安國) · 관광(觀光) · 진정(鎭定) · 순화(順化) · 명통(明通) · 준수(俊秀) · 의통(義通)이며, 중부가 8방이니, 정선(貞善) · 경행(慶幸) · 관인(寬仁) · 수진(壽進) · 징청(澄淸) · 장통(長通) · 서린(瑞麟) · 견평(堅平)이었다.

경복궁 서쪽 지역은, 현재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북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촌으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은 작은 필지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주거지로, 대규모 필지를 중심으로 작은 필지들이 위호하듯 배치되어 있는 북촌과는 차이를 보인다. 경복궁 서쪽 지역이 소규모 필지로만 구성되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이 해당 지역에 仁慶宮을 건립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림 2〉 추정 인경궁역(후원영역 제외)

※「효종대 仁慶宮內 宮家의 건립과 그 이후 宮域의 변화」(정정남, 2010)에서 인용.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창덕궁을 복구함과 동시에 경운궁과 인경궁 두 궁궐을 더 영조하였는데, 그 중 인경궁 터로 비정된 곳이 사직단 이북, 경북궁 서쪽지역이었던 것이다. 인경궁 營造는 해당지역의 閭閻을 사들이고, 사대부들로부터 집터를 희사 받아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많은 민호들로 인해 도로가 형성되고 가대가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경궁이 건립되었을 당시는 전체 궁역이 하나의 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경궁은 완공도 보지 못한 채,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으로 소실된 창덕궁을 수리하는데 목재를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전각이 훼철되면서 빈 궁터가 되고 말았다. 이후 효종 재위기간 중 인경궁터에 여러 궁가가 건립되기도 했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거하기에 이르렀고,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를 제외한 훈련도감의 상번향군과 일반 백성들이 인경궁터에 들어가 사는 것이 허락되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대부들의 入居가 금지되면서 인경궁의 터는 일반 서민들만을 위한 주거지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인경궁 건립이전과는 달리, 소규모의 가대들만으로 분화되어 현재까지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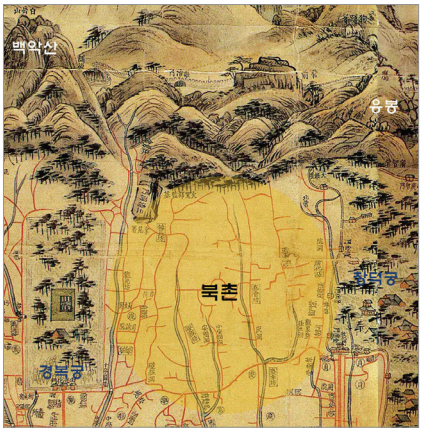
반면 경복궁의 동쪽지역인 북촌에는 인경궁 건립에 비견할 만한 큰 변화가 없

12) 정정남, 2010. 5「효종대 仁慶宮內 宮家의 건립과 그 이후 宮域의 변화」『서울학연구』에서 서촌지역의 소규모 필지형성의 기원에 관하여 밝혔다.

었다. 이는 해당지역이 조선전기와 비슷한 상태로 대한제국기까지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1912년 지적원도와 현재 도시조직의 상태를 비교해도 북쪽에 치우쳐 도시형한옥지구가 형성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북촌에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현재까지 서촌에 견줄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외압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북촌의 입지와 미세지형

〈그림 3〉 백악에서 응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둘러싸인 북촌



※ 배경지도: 『도성도』 1788년 제작, 규장각 소장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양은 풍수지리상 길지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사면이 산줄기로 이어져 도시를 감싸고, 도시 안쪽은 거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의 북쪽과 남쪽이 높고 중심부가 낮은 구조다. 여기에 북쪽과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맥의 경사면을 따라 골짜기가 형성되고,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청계천을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북촌은 白岳을 주산으로 하는 경복궁과 鷹峯이 주산인 창덕궁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백악에서 응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뒤쪽을 감싸는 형국이다. 즉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으로, 남산의 북사면에 위치한 남촌에 비하면 그야말로 주거지로써 최적의 입지를 갖추었다 할 수 있다.

조선전기와 후기를 각기 대표하는 궁궐인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북고남저로 형성된 북촌은 지도만을 통해보면 평지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촌의 안쪽 지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상에 표현되지 않은 미세지형이 존재한다. 〈그림 3〉을 보면 북쪽 산줄기의 斜面으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세 물줄기와 중간지점에서 시작하여 큰 물줄기와 합쳐지는 두 개의 물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 골짜기가 형성되고 길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북촌에는 적어도 다섯 골짜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북촌지역은 한성부 북부 12坊 중 6개 방이 있는 곳이다. 동쪽 창덕궁으로부터 남북으로 길게 광화방 · 양덕방 · 가회방 · 안국방이 나란하며 가장 서쪽 경복궁에 인접한 곳의 북쪽에 진장방, 그 남쪽에 관광방이 위치한다. 북촌의 방들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것은 앞서 언급한 북촌의 미세지형과 연관이 있다.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길을 중심으로 골짜기 양사면이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이고 그 생활권이 결국 행정구역으로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북촌은 경사면의 가장 높은 지점인 고갯마루의 능선을 따라 행정경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미세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3]

Ⅲ. 한성부 광무호적을 통해 본 북촌의 존재양상

1. 미세지형을 따라 형성된 坊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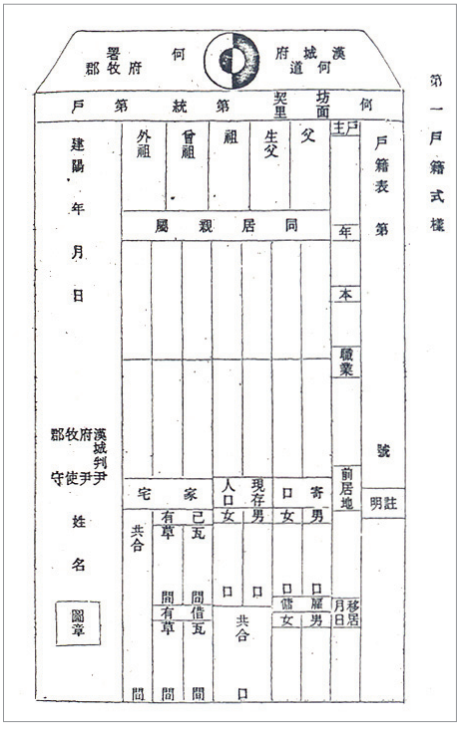
한성부 호적[14]의 분석을 통해 현 북촌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 신분과 주거규모의 존재양상을 밝히려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지역의 행정경계를 복원해야만 한다. 그래야 복원된 행정경계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신분의 사람들과 다른 규모의 주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부와 같은 것으로, 子 · 卯 · 午 · 酉의 간지가 붙는 매 3년마다 작성되었다. 각각의 행정구역내 주민들은 정해진 사항을 적은 戶口單子를 방이나 리의 담당자에게 내고, 해당 담당자는 이를 모

13) 관련한 내용은 [Ⅲ-1. 미세지형을 따라 형성된 坊경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한양 도성내부 지형의 대부분이 북촌처럼 굴곡져 있어서, 다른 지역의 방경계를 복원할 때도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대한제국기 한성부 호적은 대부분 일본 京都大學總合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 호적도 전체가 아니라 한성부의 1/6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中署의 정선방 · 장통방 · 경행방 · 수진방 · 견평방 · 관인방 · 서린방 · 징청방, 東署의 연화방, 西署의 반송방 · 용산방, 南署의 광통방 · 두모방 · 훈도방 · 대평방 · 회현방, 北署의 관광방 · 양덕방 · 안국방 · 준수방 · 의통방 · 순화방 · 가회방 · 진장방 · 광화방 · 상평방 · 연은방 · 연희방의 것들이다. 해당 호적들은 경우에 따라 건양원년(1896)의 것만 존재하기도 하고, 광무7년(1903)것만 존재하기도 하고, 광무10년(1906)의 것만 존재하기도 한다.

〈그림 4〉 제1호 호적양식



※ 규장각원문정보 서비스, 건양원년 9월 8일자 『대한제국관보』 433호에 게재된 양식

아 다시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히면, 여기에 기초하여 郡·縣·府 전체를 포함하는 호적대장이 만들어졌다. 호적대장은 다시 3~4부 정도 필사하여 1부는 지방관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중앙의 호조나 한성부, 도의 감영에 올려 지방관청의 통치 및 재정운영의 근거로 삼았다.[15]

이때 각 호에서 적어 제출한 호구단자는 기록한 종이의 크기며 형식도 제각각이어서 그 기록내용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호구조사방법은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직전인 1896년 9월에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공표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戶마다 〈그림 4〉와 같은 양식의 호적표에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행정구역별로 묶어서 호적장부로 제작하였다. 바뀐 방식으로 처음 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建陽元年(1896)이다. 이후 대한제국이 성립된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년간 내내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작성된 호적을 통칭 '광무호적'이라 하며, 이전의 호적과 대비하여 '신식호적'이라고도 부른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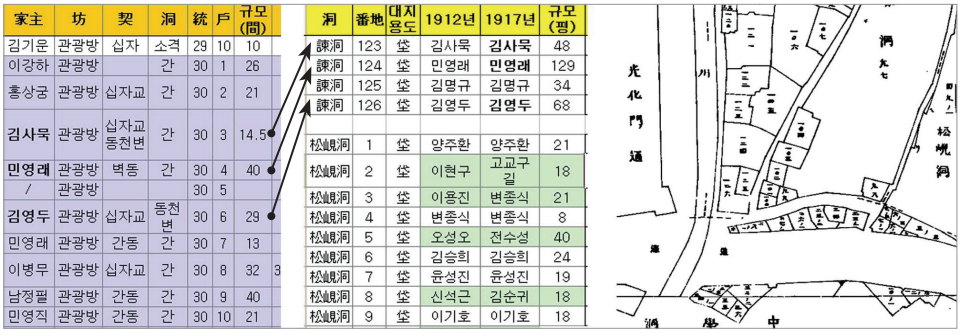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무호적에는 가장 상단에 주소를 적는 난이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나이, 본관, 직업, 전 거주지, 전입 날짜 등 개인의 신상을 적고, 3대조 및 외조, 동거친속 등 가족관계를 기입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하단에는 해당 호에 거주하는 인구수와 이전 호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가옥의 규모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부분이 있다.

15) 손병규, 『호적』(1판, 휴머니스트, 서울, 2007), 34~51쪽 참고.
16) 정정남, 「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 『건축역사연구』, v.20 n.1(통권 74호), 2011. 2, 9쪽 인용.

광무호적의 기재사항 중 방경계의 복원을 위해 사용할 정보는 호주의 이름과 署–坊–契–洞–統–戶의 순으로 기록한 주소다. 문제는 광무호적에 기재된 주소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주소체계와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바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기 전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주소체계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되었던 토지조사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성부의 행정구역 명칭은 1910년 10월 1일부터 경성부로 바뀌었다. 1914년 4월 1일부터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측량되고 구획된 경성부 186개의 洞, 町, 通의 필지에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주소가 적힌 사료를 발견해도 어느 곳인지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었다.[17]

따라서 광무호적의 정보로 조선시대 행정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통한 치환이 필요하다. 치환작업은 한성부 호적에 기록된 호주의 이름을 1912년 토지조사부에 적힌 필지 소유자와 비교한 후 동일할 경우 지적원도에 옮겨 넣는 〈그림 5〉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18]

〈그림 5〉 한성부 북부 관광방의 방경계 및 통호번 주소의 복원과정 예시



家主	坊	契	洞	統	戶	규모(間)	
김기운	관광방	십자	소격	29	10	10	
이강하	관광방		간	30	1	26	
홍상궁	관광방	십자교	간	30	2	21	
김사묵	관광방	십자교 동천변	간	30	3	14.5	
민영래	관광방	벽동	간	30	4	40	
/	관광방			30	5		
김영두	관광방	십자교	동천변	30	6	29	
민영래	관광방	간동	간	30	7	13	
이병무	관광방	십자교	간	30	8	32	3
남정필	관광방	간동	간	30	9	40	
민영직	관광방	간동	간	30	10	21	

洞	番地	대지용도	1912년	1917년	규모(평)
諫洞	123	垈	김사묵	**김사묵**	48
諫洞	124	垈	민영래	**민영래**	129
諫洞	125	垈	김명규	김명규	34
諫洞	126	垈	김영두	**김영두**	68
松峴洞	1	垈	양주환	양주환	21
松峴洞	2	垈	이현구	고교구길	18
松峴洞	3	垈	이용진	변종식	21
松峴洞	4	垈	변종식	변종식	8
松峴洞	5	垈	오성오	전수성	40
松峴洞	6	垈	김승희	김승희	24
松峴洞	7	垈	윤성진	윤성진	19
松峴洞	8	垈	신석근	김순귀	18
松峴洞	9	垈	이기호	이기호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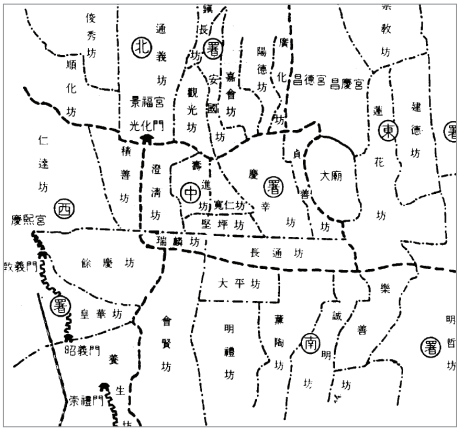
① 1906년 북서 관광방 호적 ➡ ② 1912년 토지조사부 ➡ ③ 1914년 지적도

※ 졸고, 2011. 2., 「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 『건축역사연구』 11쪽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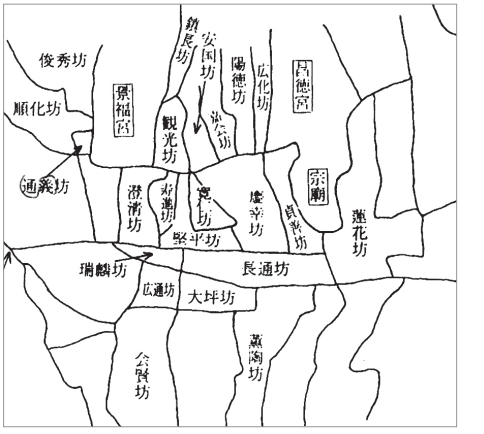
17) 정정남, 2012. 9 「대한제국기 한성부 종로일대지역의 住商복합구조 –통호번도(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서–」, 『2012년 한국건축역사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40쪽 참고.

18) 방경계 복원의 구체적 진행과정은 졸고, 2011. 2 「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건축역사연구』, v.20 n.1(통권 74호), 7~16쪽) 참조..

〈그림 6〉『京城市街圖』(1908)



〈그림 7〉 요시다의 한성부 방경계도



※ 吉田光男, 2007,『近世ソウル都市社会研究』, 草風閣,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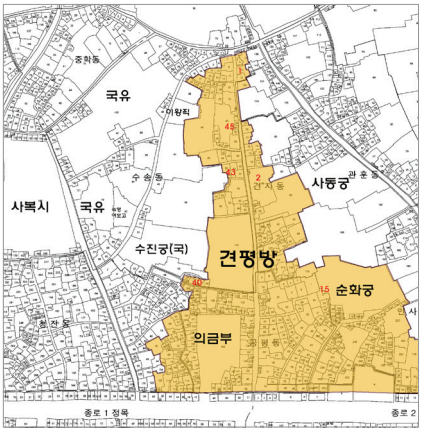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달리 과학적 측량을 통해 정밀한 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 이때 만들어진 지도들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행정경계 복원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방경계가 표시된 지도들을 비교해본 결과, 저마다 그 경계가 달라 신뢰도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간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京城市街圖』(1908)와 요시다 미쯔오가『한국경성전도』(1903)와『최신경성전도』(1907)를 통해 복원해 낸 경성부의 방경계도[19]를 비교해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을 비교해보면 종로 대로를 끼고 있는 중서지역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된다. 현재 서울 견지동, 공평동, 청진동지역에 해당하는 견평방의 경우『京城市街圖』에서는 수진방과 관인방의 남측면에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요시다 지도〉에서는 수진방과 관인방 사이까지 견평방이 걸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서의 경계는 두 지도 모두 징청방과 경행방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견평방의 방경계를 복원한 결과, 〈그림 8〉과 같이 이전의 지도들보다 훨씬 들쑥날쑥하고 복잡한 경계가 드러났다. 형태는 〈요시다 지도〉와 비슷하지만 동쪽이 경

19) 요시다 미쯔오가 여러 지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해당지도를 본고에서는 〈요시다 지도〉라 표기하기로 하겠다.

행방이 아니라 관인방에 연접해 있고, 서쪽이 징청방이 아닌 수진방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경계는 서울의 지형적 특성을 따라 형성된 도로에 기인한 것으로 〈그림 5〉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복원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8〉 중서 견평방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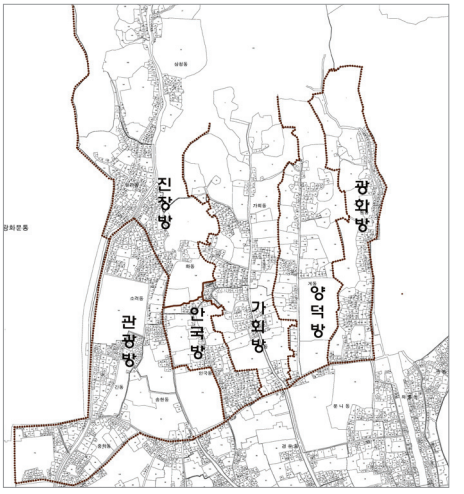
※ 그림 5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필자 작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북촌의 행정 방 경계 또한 〈그림 5〉의 과정을 통해 복원해 보았다. 坊의 행정경계를 복원함에 있어 활용한 해당지역 주거호는 전체호의 15%정도에 해당한다. 이것은 뒷부분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성부의 전입 · 전출이 높아 1906년에 작성한 광무호적과 1912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명단 중 일치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坊境界圖'를 완전하게 복원해내지는 못했지만, 일치하는 사람들의 지역적 분포가 넓어 이를 바탕으로 방경계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비교 · 추정하여 복원한 북촌의 방경계는 〈그림 9〉와 같다. 경계선은 거의 대형필지의 경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성부의 대형필지는 그 소유주가 왕실의 가족, 정재계의 재력가, 官署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이들은 비교적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풍수지리의 영향 및 水害를 대비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20] 북촌의 대형필지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지형이 높은 곳에 대부분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필지분화가 이루어져 즉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1912년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골짜기의 가장 높은 곳를 경계로 해당 필지들이 양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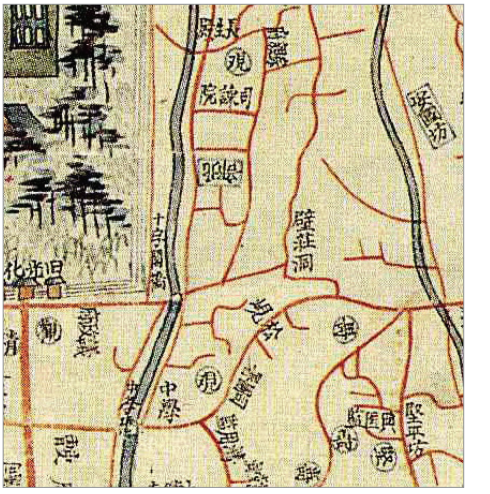
20) 정정남, 2008. 6「인사동 194번지의 都市的 變化와 18세기 漢城府 具允鈺 家屋에 관한 연구 –장서각소장 里門內具允鈺家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건축역사연구』/정정남, 2009. 8「임진왜란 이후 남별궁의 공해적 역할과 그 공간활용 –장서각소장『소공동홍고양가도형』『사대부가배치도』의 분석을 중심으로–」,『건축역사연구』제21집 / 정정남, 2010. 5「효종대 인경궁내 궁가의 건립과 그 이후 궁역의 변화」,『서울학연구』/ 정정남, 2011. 2「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건축역사연구』/ 정정남, 2014. 11「의친왕부 사동본궁을 통해 본 대한제국기 궁가의 특징」,『2014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그림 9〉 북촌의 방경계 추정복원



※ 그림 5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필자 작성

〈그림 10〉『도성도』에 표기된 관광방



※ 경복궁 남쪽과 중학 동편에 (觀)이라고 적혀 있어 해당지역이 관광방의 경역임을 알 수 있다.

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북촌의 방경계는 조선시대 미세지형을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다.

〈그림 5〉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북촌의 방경계도는『京城市街圖』및 〈요시다 지도〉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관광방과 안국방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관광방의 경우는『京城市街圖』와 〈요시다 지도〉 모두에 경복궁의 동십자각의 서쪽 부분에서 관광방이 끝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한성부호적에 기재된 주소를 따라 지도에 표기한 결과, 관광방의 범위는 동십자각을 지나 경복궁 앞쪽 議政府 및 中學이 있었던 지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영역이었음이 드러났다. 해당하는 지역이 관광방이었다는 것은 1788년『도성도』〈그림 10〉에서도 확인가능하다.

호적을 통해 복원한 방경계와 또 다른 곳은 안국방이다. 〈그림 6〉과 〈그림 7〉을 비교해보면, 안국방의 북쪽 경계를 확정하지 않고 진장방의 동편으로 치고 올라가 산줄기의 사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복원한 안국방의 경계는 1914년에 구획한 안국동과 그 경계가 비슷함이

확인되었다. 현존하는 안국방의 호적수가 172매인데, 안국동 별궁[21] 및 국유지의 호적이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안국동의 필지수와 거의 비슷한 숫자라 더욱 신뢰도가 높다. 〈표 2〉는 북촌지역 6개방의 호적 매수와 1912년 토지조사부 상의 필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관서 및 王府를 제외하고[22] 6년간의 도시적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진장방, 관광방을 제외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적어도 북촌의 경우 이전의 주소체계를 반영해가면서 일제강점기의 행정동이 구획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표 2〉 북촌지역 추정坊과 洞의 대응관계

호적(1906)			토지조사부(1912년)		
방명	통	호	동명	필지수	면적(평)
광화방	25	248	원동	247	29,049
양덕방	17	143	계동	154	35,994
가회방	32	356	가회동	218	35,201
			재동	170	14,643
			합계	388	49,844
안국방	16	172	안국동	177	18,362
진장방	35	401	삼청동	157	34,727
			팔판동	166	19,362
			화동	138	16,042
			합계	461	70,131
관광방	62	612	소격동	165	15,973
			간동	128	7,375
			송현동	72	12,547
			중학동	113	7,620
			광화문 통일부	78	14,151
			합계	556	57,666

2. 양반 중심의 거주자 신분구성

요시다 미쯔오는 한성부호적을 분석한 그의 연구에서 조선의 한성부는, 신분별 주거구역이 정해져 있던 일본의 도시들과는 달리,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雜居地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성부 전역에 평균적으로 30%의 양반들이 거주하고 있어 특정지역을 양반촌이나 중인촌으로 부르기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23] 그러나 조선시대 한성부에는 양반촌이나 중인촌이라 인식되는 지역이 분명 존재했다. 이는 한성부 전역이 잡거지라 주장하는 요시다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인식이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한성부의 특정지역이 '양반촌'이나 '중

21) 안국동 별궁은 선조와 인목왕후 사이에 태어났던 정명공주의 궁가터로 관광방에 속해 있다.

22) 호적은 호구를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官署는 통호에 산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왕의 계승서열이 아닌 자가 왕이 되어 잠저가 본궁(本宮)이 된 경우 호적을 본궁에 보관하기 때문에 호적대장상 호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1906년은 대한제국기로 왕자들이 친왕이 되면서 그들의 궁가는 왕부가 되었고 호적 또한 왕부에 보관하기 시작했으므로 한성부호적에서 친왕 및 대원왕의 호적은 제외되어 있다. 졸고, 「의친왕부 사동본궁을 통해 본 대한제국기 궁가의 특징」,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11. 123쪽 참고.

23) 吉田光男, 2009「近代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199~201쪽 참고.

인촌'으로 불리는 이유는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신분구성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님을 의미하는 결과다.

조선시대 북촌의 경우 '세력있는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였기 때문에 양반촌이라 불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한성부 호적 분석에 따르면 1903년부터 1906년까지 1坊의 3년간 전입 및 전출율이 60%를 웃돌며 1896년부터 1906년까지 10년간의 전입 · 전출율은 86.5%에 이른다.[24] 그렇다면 이처럼 전출입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세력이 있는 사대부들의 주거지가 유지되었으며[25], 무엇이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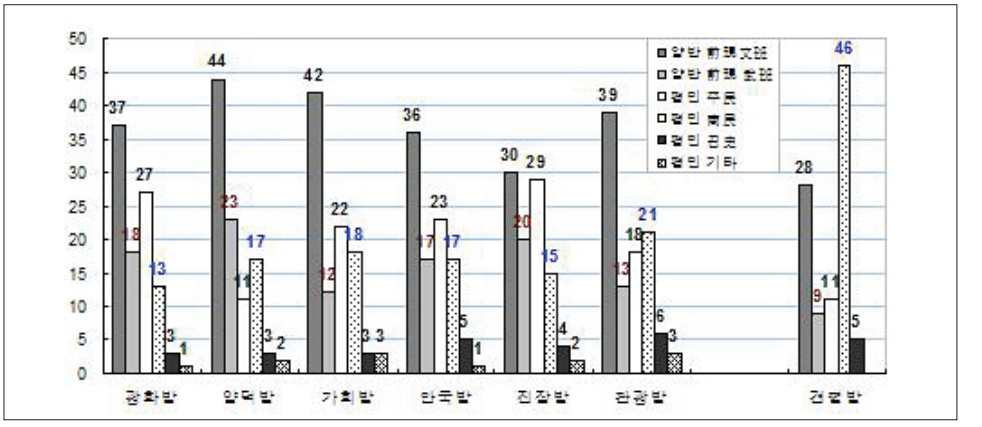
이에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선 1906년에 작성된 북촌 6개방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호주의 신분과 직업을 정리해보았다. 더불어 비교 · 분석의 자료로 조선시대에 같은 북촌으로 분류되었던 중부 지역의 견평방 호적도 함께 정리하였다. 한성부 호적의 직업란은 호주가 수입을 창출하는 직종을 적는 부분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양반[士], 농민[農], 평민[常], 장인[工], 상민[商] 등과 같이 신분을 직업과 혼동하여 적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호적이 작성된 1906년은 갑오개혁(1894년)을 통해 전통적인 신분제가 이미 법적으로 폐지되었던 시기다. 이 시기에 호적에 신분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에 신분제의 힘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26] 이는 호적을 통해 북촌의 거주자 신분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신분과 직업이 혼재된 데이터를 〈표 3〉과 같이 정리함에 있어 각 직군이 양반과 평민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은 분류기준을 만들었다.[27] 신분 중에는 양반과 평민 외에도 중인이나 천민도 있지만, 호적에 기재된 직업만으로는 해당신분을 구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양반으로 구분할 수 있는 관료직과 양반품계 외에는 모두 평민으로 구분하였다.

24) 吉田光男, 앞의 책, 232쪽 참고.
25) 전출입과 관련한 북촌 거주자 신분구성에 관하여는 [Ⅳ. 조선 후기 한성부 북촌의 주거 정체적구조]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6) 조성윤 · 조은, 「한말의 가족과 신분 – 한성부호적 분석–」(『사회와 역사』 제50권, 1996. 12.) 98쪽 참고..
27) 한성부 전체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류가 필요하겠지만 본고에서는 6개방에서 추출한 직군만을 분류하였다. 해당지역민의 신분을 분류함에 있어 호적이 작성되었던 시기 직업군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양반과 평민으로만 구분한 것은 분명 이 연구의 한계다. 이와 같은 한계들은 향후 관련 연구들의 진전과 더불어, 다른 지역 호적 분석을 통한 연구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3〉 북촌 6개방 거주자의 신분과 직업 구성(단위 戶數)

방명 \ 직업	호수	王族	양반				평민													
			現職	前職	資品	前現	平民	農民	商民			召史	匠人	技術	医師	雜職	宮人	教員	社員	空家
									市民	商民	藥局									
광화방	248		24	37	31	45	67		2	31		8	1		1		1			
양덕방	143	1	24	27	12	33	15		4	20		4	1	1			1			
가회방	356	1	48	55	49	41	77	3	10	52	1	11	6	1						
안국방	172		24	19	19	30	39		8	22		9	1	1						
진장방	401		40	39	44	79	116		19	43		15	1	1	3	1				
관광방	612		74	76	92	79	112		12	107	4	35	6	3	1	2	3	3	3	
합계	1,932	2	234	253	247	307	426	3	55	275	5	82	16	7	5	3	5	3	3	
견평방	450		27	41	59	40	49		33	173	3	23		1						1

〈그림 11〉 북촌 방별 신분구성율(단위 %, 각 데이터 값은 四捨五入한 것임)



1906년 당시 호적이 남아 있는 북촌 6개방의 戶數는 총 1,932호다. 6개방의 호주 직업을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 6개방 모두 양반 주거호의 비율이 50%이상으로 평민주거호의 점유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양덕방(현 계동)은 문무반 합쳐 67%로 가회방 54%, 안국방 53%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비교대상으로 정리한 중부 견평방의 신분구성을 살펴보면 문무양반이 37%, 평민 중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민의 비율이 46%다. 견평방은 中部 중에서도 상업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28] 북촌 6개방의 상업 종사호 평균 비율이 17%인 것에 비

28) 필자는 「대한제국기 한성부 종로일대지역의 住商 복합구조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서–」(2012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9)를 통해서, 중부에 시전과 개인 상업에 종사하는 상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종로네거리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역으로 양반 거주율을 비교해보면 북촌의 양반비율이 견평방에 비해 훨씬 높다.

〈표 4〉 북촌지역 호적에 기록된 職群에 따른 身分분류

왕족王族				
양반		평민		
전현직 문반관료	전현직 무반관료	평민	상민	기술 및 잡직
감관監官, 감리監理 감찰監察, 검사檢事 교관敎官, 교리校理 교수敎授 군수郡守 기로소전무관 耆老所典務官 도사都事, 도정都正 동지同知, 령令 봉상사장奉常司長 박사博士, 비서원승秘書院承 사승祀丞, 수봉(관)守奉(官) 수직관守直官, 승지承旨 시독侍讀, 시어侍御 시종(관)侍從(官) 원외랑員外郎, 위원委員 의관議官, 자헌資憲 전의典醫, 제조提調 주부主簿, 재무관財務官 주사主事, 찬의贊議 찰방察訪, 참봉參奉, 참서(관)參書(官) 첨정僉正, 통정(대부)通政(大夫) 특진관特進官, 판사判事 협판協辦	경무관警務官, 군무총장軍務摠長 권임權任, 무감武監, 무관학교~武官學校~ 별감別監 별검別檢, 부관副官, 부령副領 부사용副司勇 부위副尉, 사과司果 사용司勇, 선전(관)宣傳(官) 세마洗馬, 수문장守門將 수사水使, 순검巡檢, 영장營將,우후虞侯, 오위장五衛將 전감殿監, 절충(장군) 折衝(將軍) 정교正校, 정위正尉 참교參校, 참령參領 참위參尉, 참장參將 첨사僉使, 총순摠巡 충찬위忠贊衛(음관) 패장牌將, 하사下士 호위국원扈衛局員	민民 생민生民, 양인良人, 소사召史, 평인平人 환鰥 농민農民	객주客主, 상商 상민商民, 상업商業 사업事業 전당국典當局 미상米商, 약상藥商 약국藥局, 의약醫藥 가가假家[가게], 가쾌家噲[부동산] 경성인쇄사문선 京城印刷社文選 모물옥毛物屋 현방懸房[푸줏간] 혜점鞋店	고직庫直, 군의軍醫, 기사技師, 기수技手, 감역監役, 대전등직 大殿燈直, (대)청직(大)廳直, 봉상가전수 奉常可典守, 의관医官, 의사醫師, 장무掌務, 대전등직 大殿燈直, (대)청직(大)廳直, 장방직長房直
무직 문반	**무직 무반**	**군직**	**장인**	**궁인**
정1품~종9품 가선嘉善, 동몽童蒙 사仕, 사인士人 사환仕宦, 서생書生 유인儒人, 유학幼學 유업儒業, 진사進士 통훈通訓, 학업學業	정1품~종9품 출신出身 [잡과, 무과합격자] 한량閑良 [무과준비자]	군인軍人, 군직軍直 기병騎兵, 기수旗手 마대馬隊, 병정兵丁, 병졸兵卒, 산군山軍. 생도生徒, 학도學徒, 헌병憲兵 호군護軍, 호위대군 扈衛隊軍	공장工匠 목공(인)木工(人) 목수木手 석수石手 소목공小木工 야공장冶工匠 야장冶匠 인거引巨 입공笠工 장공匠工 **社員**	궁인宮人, 상궁尙宮
		단순고용직 입역직		**敎員**
		고원雇員 사령使令, 사역使役, 사인使人 서기書記 서원書員, 수복守僕 역사役事 원역員役, 입역入役		~학교교원, 교사校師
				社員
				대한매일신보사총무 한성신문사원 천일은행사무

(견평방, 서린방)를 꼭지점으로 사방으로 갈수록 상업종사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분석해냈다. 또 종로일대의 상업종사자는 상점이나 시전수 대비 훨씬 많은 것은 해당 주호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전이나 상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처에 와서 사는 구조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촌과 견편방의 양반과 상민 점유율 수치의 차이는, 한성부 전 지역이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잡거지라 할지라도 상대적 신분 점유율에 따라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값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이미 알고 있던 바대로 해당하는 수치는 1906년의 북촌이 양반촌임을 지목하고 있으며, 신분제가 혁파되기 이전시기에는 보다 강한 지역색으로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북촌 6개방 중에서 양반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덕방이지만, 문반과 무반 비율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가회방이다. 조선시대 무반이 문반에 비해 상대적 아웃사이더였던 점을 감안하면, 士大夫문화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곳은 가회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종사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광방이다. 또 가장 낮은 곳은 진장방과 광화방이다. 이는 관광방이 한성부 상업의 중심지인 종로대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진장방과 광화방이 상대적으로 상업지역과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풀이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3. 경제력에 비례하는 주거규모

한성부 광무호적상 북촌 6개방의 주거호는 광화방이 238호, 양덕방이 143호, 가회방이 356호, 안국방이 172호, 진장방이 401호, 관광방이 612호로 집계되었다. 호수로 보면 관광방이 612호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장방, 가회방, 광화방, 안국방 순이고 양덕방이 143호로 가장 적다. 그런데 1912년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를 통해 주거 밀도를 분석해본 결과 〈표 2〉, 호수의 총합과 주거밀도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주거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예상한대로 관광방이지만 다음은 안국, 광화, 가회, 진장, 양덕 순이다. 이와 같이 주거밀도의 순위가 총호수의 순위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해당하는 방의 면적과 국가나 왕실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촌 각 방의 가옥을 5칸 단위규모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정리하고, 해당하는 방의 가옥의 평면규모와 기와집의 점유율을 정리한 것이 〈표 5〉다. 6개방 전

〈표 5〉 북촌 각방의 가옥규모별 점유율 및 평균가옥의 규모

가옥규모(間) / 방명	1~5	6~10	11~15	16~20	21~25	26~350	전체 호수	가옥합계 (間)	평균 (間)	와가 (間)	와가 점유율(%)
광화방	21	52	21	4	1	1	248	2097.5	8.5	796.0	38
양덕방	14	40	22	12	1	11	143	2345.0	16	1,459.5	62
가회방	15	49	19	4	4	10	355	4876.0	14	2,669.0	55
안국방	13	53	17	7	2	8	172	2254.0	13	1,274.5	57
관광방	13	44	25	6	3	9	612	8023.5	13	4,528.0	56
진장방	25	60	12	1	1	1	401	3367.0	8	560.0	17
						합계	1,931	22,963	12	11,287.0	49
중부 견평방	8	37	27	12	7	10	450	6688.5	15	5,684.0	85

※가옥규모 별 수치는 해당 방 호수에 대한 백분율 % , 각 데이터 값은 四捨五入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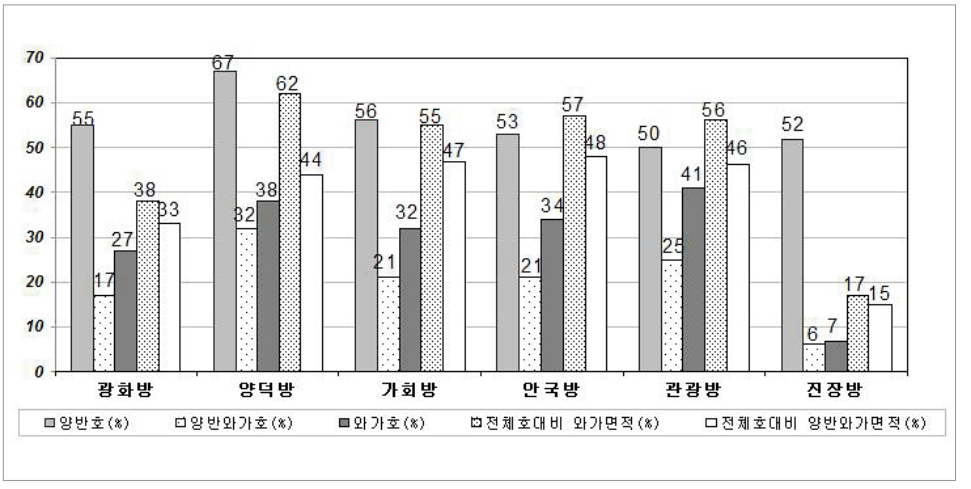
체 가옥의 전체 합은 22,963칸으로 전체 호수 1,931호로 나누면 12칸의 평균 가옥규모가 나온다. 그러나 〈표 5〉의 분포를 보면 각 방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옥의 규모는 6~10칸으로 평균값보다 적다. 이러한 수치는 소수의 인원이 대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것에서 나타난 결과로 각방의 평균가옥 규모가 6~10칸에 가까운 값을 보이면 소규모의 주택이 많고, 해당하는 수치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대규모의 주택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가옥규모가 적은 순으로 나열하면 진장방이 8칸, 광화방이 8.5칸, 안국방, 관광방이 13칸, 가회방이 14칸, 양덕방이 16칸 순이다. 앞서의 평균가옥 규모 기준으로 보면 양덕방에 대규모 가옥이 가장 많고, 진장방이 가장 적다. 이에 대해서는 가옥규모별 점유율을 정리한 수치표가 반증한다. 가옥규모가 크다는 것은 가대(家垈) 역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원한 방경계도를 보면 대형필지의 수를 헤아리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평균가옥규모의 수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옥의 間이 주거 면적을 의미한다면, 기와집[瓦家]과 초가집[草家]의 구분은 건립이나 구매 시에 얼마나 경제력을 발휘하였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조건이다. 즉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경제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초가집보다 기와집을 소유한 경우가 더 경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방의 와가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평균 가옥규모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양덕방의 와가점유율은 62%로 역시 평균가옥규모에 비례한다. 진장방은 17%, 광화방은 38%의 와가 점

〈표 6〉 북촌 각방의 양반와가호 및 양반와가 점유율(단위 %, 四捨五入한 것임)

坊名	총戶	와가戶	양반戶	양반소유 와가戶	양반소유 와가(間)	양반소유 와가평균(間)	양반소유 와가호(%)	양반와가 면적(%)
광화방	248	68	137	43	682	16	17	33
양덕방	143	55	96	46	1,361	30(23)	32	58(44)
가회방	355	112	193	73	2,404	33(32)	21	49(47)
안국방	172	59	92	36	1,085	30	21	48
관광방	612	251	321	151	3,669	24	25	46
진장방	401	28	202	24	509	21	6	15

〈그림 12〉 북촌 각 방별 양반호와 양반와가 소유 및 점유율의 상관관계



유율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지역이 경제적으로 열세인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각 방별 와가의 점유율은 양반호 또는 양반호가 점유한 와가호의 비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6개방 모두 양반호의 비율은 50%를 넘지만, 와가로 구성된 호수의 비율은 광화방이 27%, 양덕방이 38%, 가회방이 32%, 안국방이 34%, 관광방이 41%, 진방방이 6%로 50%를 밑돈다. 이는 와가의 소유가 모두 양반이라 해도 양반의 절반이상이 초가집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다.

와가는 모두 양반의 소유일까? 와가의 소유주를 살펴본 결과, 양덕방과 진장

방의 와가 소유주는은 대다수 양반이지만, 나머지 4개방의 와가 소유주는 1/3이상이 상민 또는 평민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양반의 60~70%가 초가에 기거하는 구조임을 해석해낼 수 있다.

와가를 소유한 양반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까? 〈표 6〉에서 양반이 소유한 기와집의 전체규모에 양반이 와가호를 나누어 보면 광화방 16칸, 양덕방 30칸, 가회방 33칸, 안국방 30칸, 관광방 24칸, 진장방 21칸의 값이 도출된다. 이 평균값을 통해서는 6개방 중 어느 지역에 부유한 양반들이 많이 사는지 알 수 있다. 평균 33칸의 기와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회방의 양반들이 평균적으로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회방에는 100칸이 넘는 가옥이 3호, 90칸 이상 100칸에 근접한 가옥이 2호나 있다. 그러나 전체 가옥 대비 양반 와가가 차지하는 면적 점유율을 보면 양덕방이 가장 높다. 이는 양덕방에 310칸(1906년 호적기준) 규모의 桂洞宮이 있기 때문이다. 계동궁은 왕족의 궁가로 양반호에 편입하여 분석한 것에는 오류가 있지만, 예외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를 참고하여 가회방의 대규모 가옥 소유주를 살펴보면 100칸 가옥 소유주 중에서 왕족인 完順君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덕방과 가회방에서 왕족을 제외하면 양반소유의 평균와가 규모에는 차이가 생긴다. 양덕방은 23칸, 가회방은 32칸이 되고, 점유율도 양덕방이 44%, 가회방이 47%로 낮아진다. 즉 양덕방의 경우 계동궁이 와가점유율을 높이는 견인차가 되었지만, 가회방은 완순군의 가옥이 전체 와가점유율 및 양반평균가옥 규모의 수치를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큰 기와집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양반이외의 사람들이 소유한 와가의 평균규모는 광화방이 5칸, 양덕방이 11칸, 가회방이 7칸, 안국방이 8칸, 관광방이 9칸, 진장방이 13칸이다. 진장방을 제외한 5개방 와가의 양반이외 소유주는 80%정도가 장사를 하는 상민이나 시전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市民이다. 즉 평민 중 상업활동을 하는 상민들이 비교적 경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비교를 위해 〈표 5〉의 항목에 같이 정리한 중부 견평방의 값을 보면 양반호의 비율이 37%인데 비하여 가옥 평균규모는 양덕방에 버금가는 15칸이고, 와가점유율은 85%로 북촌에서 가장 높은 양덕방의 67%를 훨씬 넘는다. 견평방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신분의 사람은 상민과 시민이다. 북

촌에서 양반이외에 가장 많이 와가를 소유한 직군의 사람들이 상인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북촌 6개방의 와가호는 양반호의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나 대규모 와가의 소유자는 거의 양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와가의 소유는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와가를 소유한 양반은 정치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넓고 크고 좋은 집의 소유는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제력에 따른 것으로 이는 북촌뿐만 아니라 한성부 전역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Ⅳ. 서울 북촌지역의 18세기 이후 주거 停滯的 구조

1. 1坊 1洞 1契의 행정편제

한성부 호적의 주소는 署-坊-契-洞-統-戶의 순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건국 초부터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5部로 편제되었지만,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5部는 5署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한성부 호적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署로 기재되었다. 편제가 바뀌긴 했어도 5부를 유지한 것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조선시대 각 시기별 한성부를 그린 지도들을 비교해보면 그 경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署 아래의 행정편제는 坊으로 행정관은 管領이었다. 坊은 1395년(태조 5)에 정해진 것으로,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한성부의 최말단 행정조직으로 戶의 편제단위로서 성격이 강했다. 방의 행정기능은 대체로 오부의 행정기능을 보좌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기능은 주로 주민 교화나 범죄예방, 주민동태 등을 보고하는 것이었다.[29] 조선 후기에도 방의 이와 같은 행정기

29) 고동환, 1998「조선 후기 漢城府 행정편제의 변화 –坊 · 里 · 洞 · 契의 변동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제11호, 49쪽 참고. 고동환(앞의 논문 50쪽)이 밝힌 조선전기 방의 행정적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각 방마다 물독 두 곳을 두어 화재를 방지하는 기능. ▶不孝, 不悌한자, 술을 마시고 싸우는 자,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자를 오부에 보고하는 기능. ▶무당을 적발하여 보고하는 기능. ▶금주 및 금도에 대한 감시 기능. ▶坐更을 감독하거나 도성 안에 설치된 경수소의 직숙기능. ▶규정을 어겨 호화주택을 지은 자를 적발하여 보고하는 기능. ▶방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기능. ▶주민 중 허위 入籍되거나 無籍자를 적발하여 보고하는 기능. ▶도적이나 강도발생을 막기 위해 동네를 순검하는 등 치안담당기능. ▶주민에 대한 호적파악과 조사하여 묶는 기능. ▶살인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

구상의 기능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 경계는 부의 경계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방 이하의 행정단위는 조선전기와 후기에 차이가 있다. 조선전기는 방 이하에 里를 두었는데, 里制는 한성부의 공식적인 행정기구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주민 자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에 필요한 직임들도 임명되었다. 100호를 기준으로 주민을 편제한 里는 서울의 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다. 里와 더불어 방의 하부에는 洞도 있었는데, 洞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붙여진 것이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행정단위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들의 동네를 지칭할 때 편의적으로 붙였던 용어다. 조선 후기의 洞은 공식 행정기구는 아니지만 조선전기 里와 마찬가지로 자연촌 내부의 자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約正이나 尊位, 有司, 三別任과 같은 職任이 존재하는 운영체제였다.[30] 고동환은『薰陶坊鑄字洞志』의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한성부의 洞은 자연형성 촌이지만, 인위적으로 편제된 里와 달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해당하는 지역만의 문화적 자부심이 강했다"[31]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 후기 坊 밑에는 洞외에도 契가 있었는데, 이는 100호를 기준으로 편제하던 里를 대체하던 행정편제다. 계는 특정집단이 免役을 목적으로 결성한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임진왜란 중에 주민을 통제하는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한성부민들에게는 지방민들과 달리 田結稅와 軍役이 부과되지 않고 坊役만 부과되고 있었는데, 계가 각종 坊役에 주민 동원을 수월케 하는 단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역의 응역단위로 계가 정착하자, 한성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계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호구단자나 호적에 계의 기록을 일반화하기 시작했다. 행정기초단위로 계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했으므로, 초기에 인적 결사의 성격이 강했던 계는 점점 지역성을 더해갔다. 방역에 대한 응역편제로서 성격이 강한 계는 인구의 증감에 따라 창설되기도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해서 조선 후기 계의 숫자는 시기에 따라 변동

30) 고동환, 앞의 논문 60~66쪽 참고.
31) 고동환, 앞의 논문 66쪽 인용.

이 있었다.[32]

이와 같은 방과 계의 확대 및 행정편제는 북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그에 대한 내용은『정조실록』정조12년(1788) 10월 16일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각부(各部)의 방(坊)과 계(契)의 명칭을 정하였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중략)… 북부(北部)의 선혜청계(宣惠廳契)·경리청계(經理廳契)·조지서계(造紙署契)·훈창계(訓倉契)·금창계(禁倉契)·어창계(御倉契)를 하나의 방으로 만들고, 홍제원계(弘濟院契)·양철리계(梁哲里契)·역계(驛契)·사계(私契)·불광리계(佛光里契)·갈현계(葛峴契)·신사동계(新寺洞契)·말흘산계(末屹山契)를 하나의 방(坊)으로 만들고, 아현계(阿峴契)·세교리(細橋里) 1계와 2계·연희궁계(延禧宮契)·가좌동(嘉佐洞) 1계와 2계·성산리계(城山里契)·증산리계(甑山里契)·수색리계(水色里契)·휴암리계(鵂巖里契)·구리계(舊里契)·망원정(望遠亭) 1계와 2계와 3계·합정리계(合亭里契)·여화도계(汝火島契)를 하나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 방의 이름을 감히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선혜청계 이하 여섯 계의 방명(坊名)은 상평방(常平坊)이라 정하고, 홍제원계 이하 여덟 계의 방명은 연은방(延恩坊)이라 정하고, 아현계 이하 열여섯 계의 방명은 연희방(延禧坊)이라 정하고서, 금년부터는 호적(戶籍)에 이 방명을 들어 쓰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한성부 판윤 서유방(徐有防)이 또 아뢰기를, "동부의 …(중략)…시행하겠습니다. 북부의 광화방(廣化坊)·양덕방(陽德坊)·가회방(嘉會坊)·관광방(觀光坊)·진장방(鎭長坊)에는 계의 이름이 없으니 본동(本洞)의 속명(俗名)대로 광화방 원동계(苑洞契), 양덕방 계생동계(桂生洞契), 가회방 재동계(齋洞契),관광방 부계(部契), 진장방 삼청동계(三淸洞契)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가하다고 하였다. 이때 다리 얹는 것을 금지하는 절목을 반포해 시행해야 했는데, 각부(各部)에 계만 있고 방이 없거나 방만 있고 계가 없는 곳이 있었으므로 비로소 그 이름을 정한 것이다.

기사는 1788년 한성부의 행정편제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북촌이 속해 있는 북

32) 고동환, 앞의 논문 76쪽 참고.

부에 관한 부분만 옮겨 적은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만 있고 방이 없던 성밖 지역을 묶어 상평방, 연은방, 연희방으로 신설하고 방만 있고 계명이 없던 북촌 5개방에 계명을 부여하여 편제한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役制의 전반적인 변동에 따라 계가 상당히 많이 조직되어 한성부 전체 방 아래에 계를 편제할 정도인데도 북촌 5개방에는 이때까지 계명이 없어서 본동의 속명에 계명을 붙여 시행하겠다는 점이다. 계명이 없다는 것이 계가 편제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숙종~정조대의 기록을 보면 광화계, 양덕방계, 가회방계, 안국방계, 진장방계, 관광방계로 각기 방명이 계명으로 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3] 관광방의 경우 관광방계 외에도 議政府內契와 中學內契가 편제되어[34] 있었으므로 1개 방이 하나의 계로 편제된 것에서는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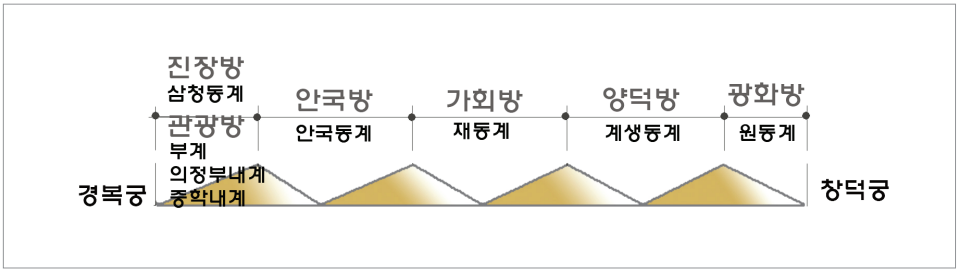
이듬해인 1789년에 간행된『호구총수』에 따르면 1개의 방이 1개의 계로 편제된 곳은 47개방중 동부의 숭교방, 건덕방, 북부의 준수방과 북촌 중 관광방을 제외한 5개방으로 총 8개 방이다. 숭교방은 성균관계, 건덕방은 어의동계, 준수방은 구사포서계로 편제되어 정확하게 방역이 성균관, 어의궁, 구사포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방을 제외한 북촌 5개방의 계는 특정 방역단위로 계명을 삼지 않고 자연형성 촌락인 동명을 계명으로 삼고 있다.

하나의 방이 本洞의 명칭에 따라 하나의 계로 편제된 1방-1동-1계의 행정편제는 북촌에서만 나타나는 예로, 이는 북촌의 마을 형성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고동환의 연구를 빌어 '洞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적 연대성의식과 문화적 자부심을 강하게 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즉 북촌이 1788년에 1방-1계로 행정편제되기는 했지만, 이전 시기와 다름없는 지역공동체인 洞이 유지된 채로였다고 볼 수 있다. 1방-1동-1계로의 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이는 방과 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의 관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방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은 管領으로 조선전기에는 5부로 내려온 명을 방에 전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최말단 행정직의 직임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인

33) 방명이 계명으로 그대로 사용된 사례는『승정원일기』숙종 24년 7월 16일, 7월 21일/ 10월 6일 기사, 영조 22년 7월 16일, 29년 1월 25일/10월 6일, 39년 7월 11일, 47년 4월 23일, 정조 7년 11월 12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승정원일기』원본1544책, 정조 7년 11월 12일 기해.

〈그림 13〉 미세지형을 따라 형성된 북촌지역 1방–1동–1계 개념도



구가 증가하고 방 아래에 계가 편제 되면서 방은 보다 큰 범위로 계를 관할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편제된 계의 행정적 처리는 尊位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존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촌락으로 유지되던 동네의 주민자치적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양반이 주로 맡았었다. 한동안 유명무실해졌던 그 존위의 제도를 1791년(정조 15) 契制에서 부활시켰다. 하지만 洞 내에 여러 계가 갈라져 있어 존위가 민정을 두루 규찰하여 총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35]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존위는 洞이 지니는 자치적 성격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것[36]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존위가 대개의 방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지라도, 북촌 5개 방은 동을 유지한 채로 계를 편제하였기 때문에, 동의 존위가 계를 총괄하기 수월한 구조였을 것이다. 또한 방의 관령도 존위를 통해 명령을 전달하고 민정에 대한 규찰을 수월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북촌도 행정적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계를 편제하기는 했지만, 1개의 방이 1개의 계로 편제 되어서 관령 1명에 여러명의 존위가 아니라, 관령 1명에 존위 1명인 행정전달 라인을 구성하게 되면서 계의 편제가 북촌의 이전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유대감을 더욱 증대시키는 구실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1방–1동–1계의 행정편제는 1788년에 정해졌지만, 이후에는 북촌에도 계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다.〈표 7〉은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와 1906년 작성된 한성

35) 『정조실록』 권 32, 정조 15년 4월 4일 무신.
36) 고동환, 앞의 논문 65쪽 인용.

〈표 7〉『호구총수』(1789)와『한성부호적』(1906)에 기록된 6개방 소속 계명과 동명

坊	1789년 (호구총수)				1906년(한성부 호적)			
	戶	口	洞	契	戶	口	洞	契
광화방	202	692	苑	苑洞	248	1,243	觀象監, 觀峴, 苑, 紫門	觀象監, 觀峴, 苑洞, 紫門洞
양덕방	124	908	桂生	桂生洞	143	982	桂, 桂山	桂洞, 桂山洞
가회방	252	1,765	齊	齊洞	355	1,993	齊, 孟峴, 中東, 紅峴, 東谷, 下東谷	齊洞, 孟峴, 上東谷, 紅峴
안국방	229	1,275	安國	安國洞	172	845	小安, 安峴, 安國	小安, 安峴, 安國
관광방	652	2,297		部, 中學內, 議政府內	612	3,231	水門, 新村, 農圃, 光化洞, 光化門, 禮賓, 中學, 西川邊, 東谷川邊, 東谷, 上東, 上東谷, 中學內, 大廳後, 松峴, 北松峴, 碧, 諫, 司諫, 上東川邊, 大安, 古里井, 銀杏, 昭格, 格, 花開, 三淸, 後碧, 宗正府後	水門洞, 水門橋, 十字橋, 東十字閣, 東十橋, 新村, 內部, 十字, 光化門, 禮賓洞, 中學, 中學橋, 東川邊, 中學內, 松峴, 北松峴, 碧洞, 諫洞, 司諫洞, 大安洞, 安洞, 銀杏洞, 昭格洞, 花開洞, 三淸洞, 宗正府
진장방	346	1,578	三淸	三淸洞	401	1,947	三淸, 八判, 花開, 泉福井, 掌苑書, 圓井	三淸洞,八判洞, 花開洞,泉福井, 掌苑書,圓井內
합계	1,805	8,515			1,931	10,241		

부 호적에 기록된 북촌 6개방의 호구와 동, 계의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호구총수』의 경우 1788년과 마찬가지로 1방-1동-1계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06년 한성부 호적의 경우 관광방을 제외한 5개방의 동과 계의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방은 비교적 많은 도시적 변화를 겪은 곳[37]으로 그 변화에 준하여 계도 상당량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5坊의 계 숫자는 3~4개로 증

37) 관광방의 19세기 말 20세기 초 도시적 변화에 관해서는 정정남,「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건축역사연구』, v.20 n.1(통권 74호)의 내용 참조.

가하였는데, 계명칭을 보면 특정 방역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1788년 계를 행정편제할 때와 유사하게 주변 동네 명칭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해당지역의 도시적 변화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북촌 지역은 20세기가 되도록 미세지형에 따라 형성된 坊을 경계로 주민자치를 시작했던 조선 전기적 성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2. 避役 및 免役이 가능한 坊의 구조

조선시대 군현의 향촌민에게는 조용조(租庸調) 세제에 기초한 田稅와 軍役, 공납 및 요역이 부과되었다. 전세와 군역 및 공물은 농사를 짓지 않고, 국가의 수도에 기거하는 한성부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에 한성부민들에게는 방별로 坊役이 부과되었다.[38]

방역은 주로 왕실 및 도성 내에서 발생하는 역으로 산릉 · 영건 · 축성 · 제언수축 · 도로수치 · 개천준설 · 교량건설 · 移邑 등 각종 토목공사 및 광산 · 창고하역 · 운송 · 鑄錢 · 藏氷 등이었다. 17세기 이후 돈을 주고 국역을 시키는 雇立制와 募立制가 발전하였음도 한성부민에게 차정되는 방역은 비정기적으로 강제 사역하는 것이어서 양반이라는 신분을 들어 역을 면제받거나 역을 피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免役 및 避役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방역을 차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자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다. 특정한 방역을 담당하는 계가 신설되거나 또는 貢市人이 특정한 방역을 담당하게 되었다.[39] 점차 계가 응역의 단위로 성장하자 18세기 말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편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북촌지역은 18세기말, 한 洞이 坊이 되고 契가 되는 1방-1계로 행정편제되었다. 이는 한성부라는 도시가 방역으로 인한 변화를 겪고, 인구증가 및 상업적인 부분과 결합하여 많은 계가 조직되었음에도, 북촌은 면역을 위한 노력이나 방역 수행을 위한 계조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38) 고동환, 2008『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85쪽 참고.
39) 김동철, 1988.12「18세기 坊役制의 변동과 馬契의 성립 및 都賈化 양상」,『한국문화연구』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16~117쪽 참조.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일까?

북촌 주거민의 신분구성과 북촌의 도시적 변화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1906년 한성부호적을 통해 북촌 거주민의 신분구성을 살펴본 결과, 주민의 50~70%가 전현직 양반관료였고, 더하여 왕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30~40%가 대규모 家垈 및 家舍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가옥의 면적은 각 방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1906년에 작성된 호적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북촌의 경우, 그 이전시기의 상황으로 追認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데이터다.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1월 28일의 기사를 보면 영조가 북부의 땅은 넓은데 민호가 적은 이유에 관해서 묻자, 북부의 관원이 지역이 후미진 데에다가 大家가 많기 때문이라고[40] 답하는 대목이 있다. 행정구역상 북부는 현재 북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촌과 북촌 중에 민호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북촌이고, 이것을 고려한다면 북부 관원의 대응은 북촌을 염두에 둔 응대였다고 할 수 있다. 1789년의 『호구총수』에 기록된 북촌의 호수는 관광방을 제외하면 1,150호 남짓이고 1906년 한성부호적은 1300여 호로 비교할 때 수치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호구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한계가 제기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인구 증가폭이 가장 피크에 이르렀던 18세기말을 포함한 호구의 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은 大家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왕족과 양반관료들의 대가중심 북촌의 주거지역 구조는 내부적으로는 지역공동체적 연대의식과 해당 지역만의 문화적 자부심을 강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성부의 입장으로 보면 관할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던 듯싶다. 『승정원일기』 영조 18년 10월 5일의 기사를 보면, 영조가 북부에 사대부들이 많이 기거하여 방역 중 하나인 시간을 알리는 坐更이 어려울 것 같다[41]고 우려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단

40) 『승정원일기』 원본953책, 영조 19년 1월 28일 계미, 彦民曰, 北部都事俞彦民也.上曰, 履歷.彦民曰, 初仕爲禁府都事, 司宰奉事, 義盈直長, 瓦署別提, 軍資主簿, 換授本職矣.上曰, 民戶與民口幾何? 彦民曰, 元戶四千六百六戶, 民口男女竝二萬二千四百五十口矣.上曰, 北部地廣, 而民戶何其小也? 在魯曰, 北部旣是僻巷, 且多大家, 故似然矣.上曰, 男丁幾何? 彦民曰, 男丁一萬一千一百二口矣.上曰, 閭家奪入坐更, 何如? 彦民曰, 申飭旣嚴, 故貰入奪入間, 姑未有犯禁者.坐更則家座次爲之, 故亦無現闕之事矣.上曰, 民瘼.彦民曰, 民瘼則五部同然, 而朝家軫念小民, 有此變通, 而臣則以爲, 必無顯效矣

41) 上曰, 北部主簿 · 參奉進來.李挺茂 · 柳逅進伏.上曰, 主簿履歷達之.挺茂曰, 臣以假引儀, 陞六遷造紙別提 · 通禮院引儀, 今五月, 待罪本職矣.上曰, 本部元戶幾何? 挺茂曰, 四千五百三十四戶矣.上曰, 人口幾何? 挺茂曰, 人口男女竝二萬五千三十八口

순히 좌경에 관한 우려만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내내 한성부민의 방역이 균등하게 부과되지 않은 것[42]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 특히 사대부들의 免役과 양민 및 노비들의 避役을 위한 軍門투탁[43]이나 사대부 家率로의 合戶[44]는 방역의 운영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가난한 민호들에게 방역을 편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면역이나 피역은 대개가 사대부들 및 군문을 핑계삼아 이루어진 것이다.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북촌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로, 그 구조상 면역과 피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의 가장 기본은 해당하는 시간을 알리는 좌경과 각 방의 도로를 修治하는 일이다. 좌경의 어려움은 이미 언급한 내용으로, 사대부의 면역과 기타 민호의 사대부가 가솔로의 合戶라는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문제다. 좌경에 비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도로수치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해 가능하다. 도로를 개수하거나 다스리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은 아니다. 홍수피해로 도로가 수몰되거나, 국왕 및 사신들의 행차로 도로를 정비해야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방역이다.

북고남저에 동네마다 물 빠짐이 좋은 물길을 끼고 길이 형성된 북촌은 홍수피해로 도로를 修治해야 할 일이 매우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왕의 행차를 유발시키는 북촌의 시설물은 정조 연간에 건립된 문희묘, 순조 연간에 건립된 수빈박씨의 경우궁과 왕족들의 궁가로, 宮廟 및 宮房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나 員役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도로의 수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촌의 면역 및 피역의 구조는 해당지역 거주민의 신분구성, 지형적 특성, 왕실의 북촌에 대한 토지이용 등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된 복합적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성부내 유사한 조건을 가진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비슷한 결과가 빚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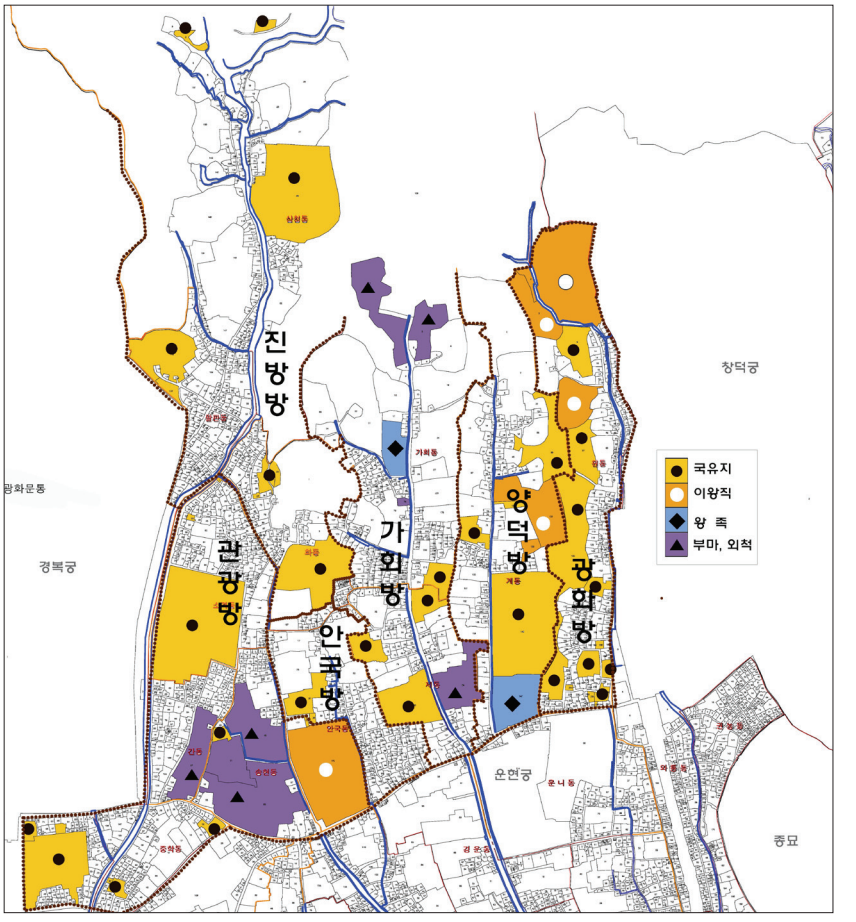
矣.上曰, 男丁幾何? 挺茂曰, 男丁, 一萬二千四百五十六口矣.上曰, 參奉先世, 有顯官乎? 逅曰, 宣廟朝駙馬全昌尉柳廷亮之曾孫也.上曰, 坊數幾何? 逅曰, 七坊矣.上曰, 閭家奪入有之乎? 逅曰, 近來則無奪入之弊矣.上曰, 坐更, 亦無闕直之弊乎? 逅曰, 坐更亦無闕直之弊矣.上曰, 北部多士大夫, 似必難矣.逅曰, 固多士夫與軍兵, 實不一一聽令, 而朝令旣嚴, 且自本部, 數數申飭, 故姑無闕直之弊矣

42) 『영조실록』 권57, 영조 19년 1월 28일 계미.

43) 『영조실록』 권32, 영조 8년 11월 21일 갑진.

44) 『숙종실록』 권50, 숙종 37년 12월 27일 신사.

〈그림 14〉 북촌의 물길과 방경계, 국유 및 왕족소유 필지



※ 1912년 토지조사부 근거 작성.

3. 신분폐쇄적 주거전용 구역의 유지

북촌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경복, 창덕궁의 주산인 백악과 응봉을 연결하는 산줄기로 감싸여 있으며 북고남저하여 볕이 밝게 드는 지역이다. 그 내부의 미세 지형은 야트막한 다섯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골짜기마다 개천이 흐르고 있어 식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확보가 수월하며 홍수피해가 적어 주거지로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촌은 조선전기부터 권문세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

였고, 새로운 궁궐터로 논의[45]되기도 했다.

권문세가 중심으로 형성된 북촌주거지는 한성부가 상업적 도시로 변해가는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주거지의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이는 자연형성적 촌락의 성격과 주민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洞을 바탕으로 행정편제되었기 때문이다. 洞을 바탕으로 하는 북촌생활권의 형성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방민에게는 문화적 자부심과 방역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외부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쉽게 파고들기 어려운 폐쇄적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 폐쇄적 구조는 가회방, 안국방, 광화방의 1903년과 1906년의 호적분석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각각 다른 해에 작성된 호적 기재사항 중 그 폐쇄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전출입자의 신분이다. 3년 동안 60%가량의 전출입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각호가 어떤 신분의 사람들에게 승계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85%이상이 동일 신분이나 직군에게 가옥을 승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즉 양반은 양반에게로, 평민은 평민에게로, 상민은 상민에게로, 군인은 군인에게로 집을 판 것이다.

대규모 가옥의 경우 경제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규모가 작은 가옥도 경제력에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매매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매매시 다른 조건이 우선시 된다. 조선시대 가옥 매매는 가옥의 칸수와 기와인지 초가인지에 따라 값이 정해질 뿐, 그 입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제력이라면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북촌에는 각 방과 계의 업무를 보는 관서 외에 좌우 궁궐근처에만 관청이 있을 뿐, 직장이 될 만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주거전용구역이었다. 이런 폐쇄적인 곳에 특별한 연고가 없이 이사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입, 전출이 신분의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내부에 암무적인 질서가 존재했고, 그 질서는 내부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로 전해지는 유전인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5) 『세종실록』 권93, 세종 23년 6월 9일 갑술.

〈표 8〉 북촌 각방별 차가비율과 차가자의 신분

坊名	借家率	차가자의 신분		
		양반	평민	상민
광화방	12%	유학 4, 전주사 1, 전참봉 1, 정3품 1, 종2품 1, 숭록대부 1, 봉상시부제조 1, 전판윤 1, 선전관 1, 출신 1, 육군정위(정3품) 1, 보병참위 1, 육군부령 1, 순검 1	평민 6, 의관 1, 전의관 1, 병정 1	상민 2
양덕방	9%	정3품 1, 무관 내부주사 1, 전주사 1, 전시종 1, 전군수 1, 전주사 1, 전참봉 1, 육군부위 2, 전주사 1, 참위 1	계동궁인 1, 학교조교 1	상민 1
가회방	8%	궁내부 참서관 1, 전의관 1, 사인 2, 한량 1, 4품 1, 6품 1, 태복시주사 1, 전참서관 1, 전참봉 2, 전위원 1, 교관1, 육군정위 1, 6품 1, 육군유년학교구대장 1, 전구관 1	평민 8, 산군 2, 상등병 1	시민 1, 상민 1
안국방	9%	종2품(민경호151칸), 유학 1, 전도정 1, 전군수 1, 전국장 1, 육군부위 1	교직 1, 평민 1, 별궁수직관군 2, 소사 1	시민 1, 상민 2
관광방	12%	유학 6, 내부주사 5, 전군수 3, 사인 3, 정3품 2, 전의관 2, 보령군수 1, 전주사 1, 전감리 1, 전감찰 1, 전홍릉사승 1, 진사 1, 중학교학원 1, 전참봉 1, 홍릉사승 1, 오위장 1, 의릉령 1, 출신 2, 육군부위 2, 무관학교정교 1, 육군참위 1, 참위 1, 사용 1	평민 16, 학도 1, 장방직 1, 호위국고원 1, 순강원수복 1	상민 7, 시민 3
진장방	8%	내부주사 1, 9품 1, 주부 1, 전감찰 1, 전수문장 1, 사인 1, 전도사 1, 위원 1, 지방조사위원 1, 사인 1, 주사 1, 단양군수 1, 건릉령 1, 한량 1, 전첨정 1	평민 12, 양인 1, 순검 1	시민 2
견평방	8%	주사 1, 진사 1, 유학 1, 한성재판부수석판사 1, 전주사 1, 전군수 1, 정3품 1, 참령 1, 전사과 2, 참위 1	평민 5	상민 12, 시민 2

북촌의 폐쇄성과 정체성은 전출입자 외에 집을 빌려 들어와 사는 借家者의 신분 및 직업분석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표 8〉은 1906년 북촌 6개방 호적에서 확인되는 차가호의 호주 신분을 분석한 것이다. 차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화방과 관광방으로, 광화방은 군영과 관서가 밀집한 지역이고 관광방은 관서 및 시전이 가까운 곳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배경을 참고하여 차가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광화방의 경우 무관직관료 및 하급관원이 주로 차가하였고, 관광방의 경우 하급관원과 상업을 하는 상민이 주로 차가한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광화방, 관광방과는 다른 의미로 들여다 보아야할 지역이 가회방, 안국방, 진장방이다. 가회 · 안국방의 경우 고위직 관료 및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차가하였다면, 진장방의 경우 비교적 하급관료나 한직 신분의 사람들이 차가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광화 · 관광방이 직장과 주거지가 함께 공존하는 職住 혼합 구조지역이라 할 수 있고, 양덕 · 가회 · 안국 · 진장방은 가옥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과 주거지의 조건이 맞아야만 진입할 수 있는 주거전용 구역이라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구분은 상업의 중심지인 중부 견평방의 차가자의 신분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견평방의 경우 관서 및 궁가, 사대부가들이 함께 밀집한 곳이지만, 집을 빌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50% 가까이가 商人이다. 借家者 대부분은 한성부 다른 지역에 自家를 소유하고 있지만, 가까운 직장을 위하여 견평방에 집을 빌려 들어온 사람들이다.[46] 반면 북촌 중 가회 · 안국방에 차가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대규모의 집을 차가하여 살다가 이후 그 집을 매입하여 소유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북촌의 주거 전용구역적 특질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조건들과 배경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에서 살피지 못한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 역시 북촌의 더욱 견고하고 폐쇄적인 주거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Ⅴ. 맺음말

현재 서울의 북촌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 한성부 북부에 편입되었던 곳이다. 경복 · 창덕궁의 주산인 백악과 응봉을 연결하는 산줄기로 감싸여 있으며 산줄기의 사면을 따라 남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으로 볕이 잘 들어 풍수상으로 주거吉地다. 경복 · 창덕 두 궁궐과 산줄기로 둘러싸인 그 내부에는 야트막한 다섯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짜기마다 개천이 흐르고 있어 식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확보가 수월하고 홍수피해가 적다. 지형, 풍수, 입지적 장점때문에 북촌은 조선전기부터 권문세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였다.

본고는 광무년간에 작성된 한성부호적의 분석을 통하여 앞서와 같은 지형 · 입지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북촌 지역의 조선시대 坊경계를 복원하고, 북촌지역 거주민의 신분구성과 주거규모의 존재양상을 고찰하려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이후 북촌의 지역적 특질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해졌는지 追認하여 밝히

46) 정정남, 2012. 9「대한제국기 한성부 종로일대지역의 住商복합구조 –통호번도(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서–」,『2012년 한국건축역사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참고.

려 했다.

1906년 한성부호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존재양상이 읽혔다.

1. 북촌의 각 골[洞]은 동쪽으로부터 광화방, 양덕방, 가회방, 안국방, 진장방, 관광방으로 행정구획 되었으며, 坊의 경계는 골의 가장 높은 지점을 따라 형성되었다.

2. 북촌 6개방 거주민의 신분은 양반, 중인, 평민, 상인 등 특정신분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섞여 있으나, 거주자 중 양반 비율이 평균 56%로 가장 높아 '양반촌'이라는 별칭이 단순히 권문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북촌 6개방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가옥의 규모는 6~10칸 사이며, 기와집은 전체 가옥면적의 49%를 차지한다. 양반 중 기와집을 소유한 호는 전체호수의 17%로 양반의 1/3정도에 해당하지만 그들이 소유한 와가의 규모는 6개방 전체가옥의 39%를 점유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는 와가를 소유한 양반의 정치 · 경제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기와집을 소유한 또 다른 신분은 왕족과 평민 중 장사를 주업으로 하는 商民, 시전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市民이다.

정치 · 경제력을 가진 왕족과 사대부들의 大家로 이루어진 북촌은 이들에 의해 형성된 洞문화가 존재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 · 免役 또는 避役의 조처가 필요치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17~18세기 한성부민들이 방역에 대한 응역의 단위로 인적결합 및 공간적 동질성을 담보로 하는 契를 조직하여 운영할 때에도 북촌의 지역민들은 신분을 통한 면역과 피역이 가능했다. 따라서 여러 계를 조직하여 내분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었고 18세기 말 1방-1계로 편제될 수 있었다.

하나의 골[洞]이 하나의 坊이 되고 그 坊에는 하나의 契만 있는 1방-1계의 행정편제는 북촌이 조선전기와 같은 주거지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제도적으로 인정된 洞의 문화는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북촌에 전출 · 전입 · 차가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동질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암묵적 · 폐쇄적 질서가 되기도 했다.

조선의 수도 한성부는 17~18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상업적 도시로 변모해 갔다는 것이 그간의 학설이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돈을 받고 방역을 대신하던 조직

인 契가 18세기 말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편제되기 시작한 것을 들고 있다. 한성부의 모든 지역이 경제적 논리에 따르며 계를 편성하여 상업화되어 가고 있던 조선 후기, 북촌지역만 유일하게 더디게 변하고 있었다. 이는 북촌지역이 지형·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신분 폐쇄적 주거지역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성부가 상업도시로 힘있게 변화해 가는 동안에도 북촌지역만은 주거 전용구역으로 停滯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북촌의 주거 정체적 구조는 일제강점기 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인과 그들의 카페, 북쪽 경사면에 대규모 필지를 구획하여 만든 도시형 한옥단지에 의해 깨지기 시작했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졌다.

북촌의 주거 전용구역적 특질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조건들과 배경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에서 살피지 못한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지만, 그에 대하여는 향후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

접수일 : 2015. 2. 16. **심사일 :** (1차) 2015. 3. 26. (2차) 2015. 10. 30.
게재확정일 : 2015. 11. 2.
주제어 : 서울 북촌, 한성부 북부, 한성부 호적, 1방-1계, 광화방, 양덕방, 가회방, 안국방, 진장방, 관광방, 양반촌, 동문화, 방경계도(坊境界圖)

■ 참고문헌

【사료】

융희원년, 광무7년, 광무10년『한성부호적』, 일본 京都大學 總合博物館 소장.

1912년 제작『토지조사부』, 국가기록원 소장.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京城府管內地籍目錄』, 大正6年(1917)영인본, 大林出版社, 서울, 1982.

『京城府管內地籍目錄』, 昭和2年(1927) 영인본, 大林出版社, 서울, 1982.

『京城府壹筆每地形明細書』, 昭和4년(1929).

『京城便覽』, 弘文社, 昭和4년(1929).

【지도】

陣內六助, 昭和2年『京城府管內地籍目錄』, 京城公同株式會社.

川合新一郎, 昭和4년『京城府壹筆每地形明細書』, 朝鮮都市地形圖刊行會.

白寬洙, 昭和4년『京城便覽』, 弘文社.

1912~1914년 제작 서울 지적원도, 국가기록원 소장.

서울歷史博物館 編, 2006『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이 찬, 1995『서울의 옛 地圖』,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서울학연구소.

허영환, 1994『정도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논문 및 단행본】

강병식, 1994『日帝時代 서울의 土地硏究』1판, 민족문화사, 서울.

고동환, 2008『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고동환, 2005「조선 초기 한양의 형성과 도시구조」,『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고동환, 1998. 6「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추세와 도시문제 발생」,『역사와 현실 제

28권』, 한국역사연구회.

고동환. 1998「조선 후기 한성부 행정편제의 변화 –방.리.동.계의 변동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11, 서울시립대서울학연구소.

권내현, 2006「쟁점 : 조선 후기 호적,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김동철, 1988. 12「18세기 坊役制의 변동과 馬契의 성립 및 都賈化 양상」,『한국문화연구』창간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두섭, 1993「조선시대 한성부인구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한국사회학』26.

김영모, 1980「한말 한성부민의 신분구조와 그 이동」.『성곡논총』11, 성곡학술문화재단.

김영배, 1991. 4「한말 한성부 주거형태의 사회적 성격–호적자료 분석을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박경용, 1992「대한제국시대 한성부 연구 –한성부 '거문'내용을 중심으로–」,『한국사학논총』.

박학성, 1998「조선 후기 한성부민의 호구문서에 보이는 '협호'의 성격」,『조선사연구』7. 조선사연구회.

손병규, 2007『호적』, 휴머니스트, 서울.

손병규, 2013「1900년대 '광무호적'의 '사'와 '민적'의 '양반' 기재」,『대동문화연구』8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송인호, 2002. 6「북촌가꾸기 기본계획 : 연구와 실천」.『건축역사연구』통권 30호.

원영환, 1981「한성부연구(Ⅰ) –행정제도와 관할구역을 중심으로–」,『향토서울』3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원영환, 1990『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이규태, 1994『이규태의 600년 서울』, 조선일보사.

이근호, 2004「17, 18세기 '여가탈입'을 통해 본 한성부의 주택문제」,『도시역사문화』2, 서울역사박물관.

이태진 외, 2000『서울상업사』, 태학사.

임병조, 2010『지역정체성과 제도화』, 한울.

임학성, 2004「조선 후기 한성부민의 호적자료에 보이는 '시입'의 성격 –한성부 주민의 주거 양상을 구명하기 위한 일시론–」,『고문서연구』24, 한국고문서학회.

정정남, 2012. 11「대한제국기 한성부 종로일대지역의 住商복합구조」,『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정정남, 2011. 2「漢城府의 '統戶番圖' 제작과정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觀光坊 대형필지의 변화양상」,『건축역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조성윤 · 조은, 1996. 6「한말의 가족과 신분–한성부 호적분석」,『사회와역사 제50권』

家永祐子, 2010「북촌 한옥마을의 서울학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吉田光男, 2009『近代ソウル都市社會研究–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浦安.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 2004『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料解題』, 東洋文庫, 東京.

【검색도구로 활용한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검색시스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학자료센터

ABSTRACT

Unchanged Residential Area System in Bukchon(北村), Seoul since the 18th century

Chung, Jung-nam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Kyonggi

Bukchon, Seoul is area enclosed by a mountain range and to the North is high and to the South is low. The inside is made up of the five lower valleys and every valley streams flowing. The Administrative District Names of each valley were Ganghwa-bang, Yangdeok-bang, Gahoe-bang, Anguk-bang, Jingjang-bang, Gwangwang-bang from east in the Joseon Dynasty. Inside each valley, there was a naturally formed village and each village(坊) had a culture of autonomous residents.

That culture of each Bang(坊) is created by the royal family and nobility who has not a financial difficulties or not required efforts to avoid citizen labor(坊役). Hanseongbu(modern Seoul) citizens organized Gye(契)-Unit on the basis of human bonds and a spatial homogeneity in oder to perform their citizen labor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But because Bukchon people was able to avoid or exempt citizen labor from social status, they did not organize Gye-Unit. As a result, there was organized into 1Bang-1Gye by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out experiencing conflict divided into several Gye-Units.

Bukchon could be maintained as a non-commercial residential areas like early Joseon Dynasty thanks to the system of 1valley-1Bang(village)-1Gye. Due to this, the culture of

Bukchon became increasingly exert great force and it functioned as a power for holding the social status of residents.

Since the 18th century, though Hanseogbu was turned commercial city, Bukchon was still as unchanged residential area, due to topography, location, social status construction, village culture etc.

Keywords : Seoul Bukchon(北村), Hanseongbu(漢城府), Gye(契)-Unit, 1Bang(坊)-1Gye(契), Ganghwa-bang(廣化坊), Yangdeok-bang(陽德坊), Gahoe-bang(嘉會坊), Anguk-bang(安國坊), Jingjang-bang(鎭長坊), Gwangwang-bang(觀光坊), nobility village.

국문초록

18세기 이후 한성부 북부 6방(坊)(현 북촌)의 주거 정체적(停滯的) 구조

정정남
공학박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현재 서울의 북촌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 한성부 북부에 편입되었던 곳이다. 경복 · 창덕궁의 주산인 백악과 응봉을 연결하는 산줄기로 감싸여 있으며 산줄기의 사면을 따라 남쪽으로 낮아지는 지형으로 볕이 잘 들어 풍수상으로 주거吉地다. 경복 · 창덕 두 궁궐과 산줄기로 둘러싸인 그 내부에는 야트막한 다섯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짜기마다 개천이 흐르고 있어 식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확보가 수월하고 홍수피해가 적다. 지형, 풍수, 입지적 장점때문에 북촌은 조선전기부터 권문세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였다.

본고는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한성부호적의 분석을 통하여 앞서와 같은 지형 · 입지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북촌 지역의 조선시대 坊경계를 복원하고, 북촌지역 거주민의 신분구성과 주거규모의 존재양상을 고찰하려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이후 북촌의 지역적 특질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해졌는지 追認하여 밝히려 했다.

1906년 한성부호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존재양상이 읽혔다.

1. 북촌의 각 골[洞]은 동쪽으로부터 광화방, 양덕방, 가회방, 안국방, 진장방, 관광방으로 행정구획 되었으며, 坊의 경계는 골의 가장 높은 지점을 따라 형성되었다.

2. 북촌 6개방 거주민의 신분은 양반, 중인, 평민, 상인 등 특정신분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섞여 있으나, 거주자 중 양반 비율이 평균 56%로 가장 높아 '양반촌'이라는 별칭이 단순히 권문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북촌 6개방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가옥의 규모는 6~10칸 사이며, 기와집은 전체 가옥면적의 49%를 차지한다. 양반 중 기와집을 소유한 호는 전체호수의 17%로 양반의 1/3정도에 해당하지만 그들이 소유한 와가의 규모는 6개방 전체가옥의 39%를 점유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는 와가를 소유한 양반의 정치 · 경제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기와집을 소유한 또 다른 신분은 왕족과 평민 중 장사를 주업으로 하는 商民, 시전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市民이다.

정치 · 경제력을 가진 왕족과 사대부들의 大家로 이루어진 북촌은 이들에 의해 형성된 洞문화가 존재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 · 免役 또는 避役의 조처가 필요치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17~18세기 한성부민들이 방역에 대한 응역의 단위로 인적결합 및 공간적 동질성을 담보로 하는 契를 조직하여 운영할 때에도 북촌의 지역민들은 신분을 통한 면역과 피역이 가능했다. 따라서 여러 계를 조직하여 내분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었고 18세기 말 1방-1계로 편제될 수 있었다.

하나의 골[洞]이 하나의 坊이 되고 그 坊에는 하나의 契만 있는 1방-1계의 행정편제는 북촌이 조선전기와 같은 주거지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제도적으로 인정된 洞의 문화는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북촌에 전출 · 전입 · 차가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동질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암묵적 · 폐쇄적 질서가 되기도 했다.

조선의 수도 한성부는 17~18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상업적 도시로 변모해 갔다는 것이 그간의 학설이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돈을 받고 방역을 대신하던 조직인 契가 18세기 말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편제되기 시작한 것을 들고 있다. 한성부의 모든 지역이 경제적 논리에 따르며 계를 편성하여 상업화되어 가고 있던 조선 후기, 북촌지역만 유일하게 더디게 변하고 있었다. 이는 북촌지역이 지형 ·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신분 폐쇄적 주거지역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성부가 상업도시로 힘있게 변화해 가는 동안에도 북촌

지역만은 주거 전용구역으로 停滯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북촌의 주거 정체적 구조는 일제강점기 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인과 그들의 카페, 북쪽 경사면에 대규모 필지를 구획하여 만든 도시형 한옥단지에 의해 깨지기 시작했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졌다.